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사무처 홍보실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http://j catholic.or.kr | E-mail catholic114@hanmail.net



교구장 사목교서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사진 | 강성석 빅토리아노(가톨릭사진가회)

① 박현웅 신부(주임) ② 서동욱 신부(보좌) ③ 신 안젤라 수녀(예수수도회) ④ 서광석(사목회장) ⑤ 이주상(사무장) 외 사목회원

입당송 _ 시편 13(12),6 참조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대영광송>

제1독서 _ 1사무 26,2.7-9.12-13.22-23

화답송 _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ㄱ)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

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2독서 _ 1코린 15,45-49

복음환호송 _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_ 루카 6,27-38

영성체송 _ 시편 9,2-3

주님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 나이다.

주보 <숲정이>는 전주교구의 역사이고 소식이며 선교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받기보다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선홍 빈첸시오 신부
(교구 이주사목국)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루카 6,27)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은 오늘 복음에서 두 번 반복돼 등장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바보 같이 되라는 말씀과 다를 것 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당신께서 그 말씀들을 모두 실천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군중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면서도 동시에 미움과 시기 질투, 박해를 받으시는 와중에도 당신께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당신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멀리하셨다면, ‘원수를 사랑하여라’라는 이 말씀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허공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몸소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로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힘과 권위에 의지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정 중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인간관계 안에서 의외의 변수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99번 좋았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단 한 번 불행한 일이 있었다면, 한 번의 불행 때문에 99번의 좋았던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을 겁니다.

단 한 번의 오해,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형제자매가 원수로 둔갑하는 불행이 종종 생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단 한 번의 불행이 있어도 나머지 99번의 행복을 되살려서 용서해 주고 이해하여 존중해 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나만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과 존중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우선이라면, 사랑받는 방법은 알아도 사랑하는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선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선의 결핍은 결국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원수를 사랑하며 오직 선이 충만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그저 명령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유와 권고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사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지니고 살아갈 때, 애초에 원수를 만드는 점차 사라집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환경과 배경도 널리 헤아려야 한다.’ 이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존중받기보다 먼저 존중하고 경청합시다. 한 순간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느님께서 가능하게 바꿔주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고산(진안) 소년 윤영득

전주 교구를 대표하는 형제 순교자 중에 명문 양반 집안 사람으로 이경도(가롤로), 이순이(루갈다), 이경언(바오로)이 있습니다. 1801년 박해 때 장남 이경도와 차녀 이순이가 순교했고, 1827년 박해 때 삼남 이경언이 순교했으며 현재 세 분은 124분 복자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남매가 순교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 가족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특히 이 세 분들 중에 복자 이경언을 묵상해 봅니다.

이경언은 태어난 다음 해 부친 이윤하가 선종했고, 1797년 5살 때 이순이가 시집갔으며, 그 후 1801년, 9살 때에 형 이경도와 누나 이순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후, 홀로 된 어머니와 미망인이 된 형수와 살았던 이경언은 어린 시절부터 천주교 신앙인으로 겪어야 할 고통과 가난을 체험합니다. 허약한 몸 때문에 잔병치레가 많았던 그는 성장한 후에 중인 신분의 여성과 결혼합니다. 결혼 후에도 이경언은 서울에 살면서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을 충실히 실천하였고, 특히, 천주교 서적 필사와 성화를 베껴 그것들을 교우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으며, 사제가 없어 성사를 갈망하는 조선 교우 신자들을 위해 사제 영입 운동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후 1827년 전라도에 박해가 일어났고, 이경언은 천주교 서적과 성화를 유포한 죄목으로 전주에서 올라온 포교에 의해 체포된 후 전주로 이송됩니다. 수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여러 차례 심문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경언은 오히려 천주교 신앙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겪은 고문후유증으로 인해 이경언은 36세의 나이로 누나 이순이가 순교한 전주

땅,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경언이 옥살이를 할 때 고산(진안) 지역 활목 출신으로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전주 감영으로 끌려와 함께 옥에 갇힌 윤영득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강석진 요셉 신부
(개갑장터 순교성지)

이 소년은 이경언이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받을 때마다 이경언 곁에서 지극 정성으로 간호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왕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이경언은 자신의 가족들과 전교활동을 함께 했던 '명도회원'들에게 <옥중편지>를 씁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윤영득에게 그 편지들을 맡기면서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그 편지를 가족들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소년은 이경언의 편지를 받고, 그 약속을 실행에 옮겨 가족들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전해진 이경언의 편지는 형 이경도, 누이 이순이의 편지와 함께 《초남이 남매 일기》로 엮어져 박해 시기 수많은 신자들에게 읽혀 신앙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었던 중요 문서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조선 천주교회를 위해 큰 역할을 했던 이경언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소년 윤영득의 만남은 서로 각자의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신앙 선조들에게 100년 이상의 박해를 견디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 하느님 역사 안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몫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삶, 그게 바로 한국 교회의 버팀목 중의 소중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 전주교구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안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4년 5월 13일에 교황청 내사원을 통해 ‘희망의 순례자들’이란 주제로 ‘2025년 정기희년’을 선포 하시면서, 보편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전대사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I. 대사(大赦)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1항은 바오로 6세 교황님의 교황령을 인용하며 대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옮겨 설명합니다.

“대사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暫罰)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 주고 활용한다.”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잠시적인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indulgentia partialis)와 전대사(indulgentia plenaria)로 구분됩니다.”

II. ‘2025년 정기 희년’ 전주교구 전대사 수여 조건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를 얻겠다는 의지를 품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대사의 통상 조건 ‘**고해성사**’(전대사를 얻은 날 기준, 직전 10일 이내 받은 고해성사는 유효)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른 기도**’(『매일미사』 참조)를 바친다.

1. 교구 지정 희년 순례지(옆면 참조)를 방문하여 미사에 참석하고 영성체를 한다.
2. 교구 지정 희년 순례지를 방문하여 공적으로 거행되는 전례(말씀 전례, 성무일도,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등)에 참석한다.
3. 교구 지정 희년 순례지를 방문하여 성체조배와 묵상을 하고,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성모님께 간구한다.
4. 정기 희년 기간 동안 교회 기관에서 주관하는 선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영신수련을 받거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5. 병든 이들, 수감자들, 고독한 노인들, 장애인들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적절한 시간 동안 방문하고, 위에 제시된 통상 조건을 따른다.
6. 참회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실천(금욕, 기부, 봉사)을 한다.
7. 희년 기간 동안, 교구 지정 희년 순례지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교황의 강복을 받는다.

※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일 두 번째 미사에 참석하여 영성체를 한다면 두 번째 전대사는 연옥 영혼에게만 적용됩니다.

※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나, 순례지 방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자들(병세수도회 회원들, 노약자들, 입원환자들, 수감자들 등)은 자기 집이나 자기 가 머물고 있는 어느 곳(수도원, 병원, 요양원 등)에서든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희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유 기도를 바치고 자기 삶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쉽고 제주 여행
3.13~16(추자도 포함) / 3.18~20 / 3.23~26(추)
3.29~31 / 4.1~3 / 4.10~12 / 4.14~16
- 02-773-1455 / 064-796-4182 -

온누리 바른척추&통증관리

목·어깨·팔·허리·다리
척추 골반 통증 및 체형 관리
최민준 시몬 010-3684-5544
- 효자동 신기독병원 맞은편 -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냐시오) 박민정(루퍼나)
롯데백화점 옆
- (063)255-8700 -

남문앤몰·남문문구센터

전주시 보건소 옆
문화누리카드/각종 지원금 가능
문구·완구 외 5만가지 상품몰
- 063)283-9100 원수관 야고보·심경이 마리아 -

아름다운 김현숙안과

쌍꺼풀수술·상안검성형술·하안검성형술
성형안과 정회원
원장 김현숙 레지나
- 신시가지 국민은행 5층 063)225-7717 -

성바오로복지병원

양·한방 협진, 수술 후 회복기, 암 환자
만성질환, 기타 요양이 필요한 질환(면회 가능)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 063)249-3300~3302 -

2025년 정기 희년 순례 성당·성지 지정 안내 ▼



성지

- 김제순교성지(요촌성당) - 김제시 신평길 253-16
- 개갑장터순교성지 - 고창군 공음면 선운대로 91
- 나바위성지 -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길 146
- 여산순교성지 - 익산시 여산면 영전길 14
- 전주숲정이성지 - 전주시 덕진구 공북로 19
- 천호성지 -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길 124
- 치명자산성지 - 전주시 완산구 바람쇠는길 120
- 초남이성지 - 완주군 이서면 초남신기길 122-1

성당

- 중앙 주교좌성당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1
- 전동성당 -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 윤지충성당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09
- 권상연성당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76
- 윤지현성당 - 군산시 미제길 72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4/22 다낭 5일 , 4/28 홍콩마카오 4일
 4/1, 4/15, 5/15, 5/25 제주도 성지순례(주차도)
 4/8 대전 4일, 5/12 춘천원주 4일, 6/3 수원 3일
 -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michaeltour.co.kr -

양빛나 유외과

유방 갑상선 전문의 · 여성 전문의
 원장 양빛나(리나), 이주환(요한)
 호자동 홈플러스 맞은편 하나은행 4층
 - 063)228-9336 -

전주 미르치과 병원

진료문의 063)224-7700
 이선하 크리스티나 정희웅 프란치스코
 허선 세라피나 정자실 소화테라사 김동욱 요셉
 - 중화산동 은하아파트 사거리 (백제대로218) -

전일관광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아테네.메테오라.알바니아.메주고리에.보스니아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
 2025년 4월 27일~5월 10일(매일 미사 있습니다)
 - 전일관광 조선 안토니오 063-288-6666 -

서울영상의학과 MRI센터·심장센터

최신 AI장착 3.0T 지멘스 MRI 도입
 심장초음파CT. 특수촬영
 박인숙 아나다시아, 설명진(영상의학과)
 - 김원호 베드로(심장내과) 063)278-1313 -

장문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암 검진기관
 위.대장·항문병 중점, 위.대장 내시경 센터
 내과: 나용호 / 외과: 최성양(루카)
 - 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옆 -

- **새 사제 연수**
2월 27일(목) 오전 10시 교구청
- **무지개장학재단 이사회**
2월 28일(금) 오후 3시 교구청
- **사목방문 및 견진**
3월 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용머리

이번 주 교구 행사

- **2월 24일(월)**
-전주가톨릭신학원 2025학년 1학기 개강 (~28일)
-가톨릭농민회 총회(오전 10시 유항검관)
-전주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태아와 어린이 축복미사 (오전 11시 자비의 성전)
- **2월 25일(화)**
-군산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2월 27일(목)**
-제105차 청년성서 마르코 연수 (~3월 2일, 천호성지 피정의 집)
- **3월 2일(주일)**
-초중고 교리교사 아카데미 (오전 10시 유항검관)

전주항외과(구, 항병원)

치질·하지정맥류·탈장
위대장내시경·국가건강검진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카), 이관재, 황정환
- 228-6002 삼천동 세창짜임APT 맞은편 -

교구 내 알림

- **전주교구 말씀.치유의 기도회**
일시 : 매주 금 저녁 7시~11시 30분
장소 : 치명자산성지입구 자비의성전
주최·주관 : 전주교구 성령새신봉사회
- **성모기사회 성모신심미사**
3월 1일(토) 09:20 기도 후 미사
오후 7시-젊은이들을 위한 신심미사
문의 : 010-8627-5742/효자동성당
- **천호성지 첫 목요일 성시간 및 특강**
3월 6일(목) 오전 10시 성시간
오전 11시 가정미사
- **화산동성당 사무장 채용 공고**
자격 :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운전면허 1종,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서류 : 이력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자기 소개서, 교적 증명서
마감 : 2월 28일(금)
문의 : 063)221-9842(사무실)
010-9655-4477(사목회장)
- **전주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이메일 : jjcatholic@hanmail.net

교구 밖 알림

-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zoom)**
일시 : 3월~11월(주일) 16-18시
12만원 × 3회
지도 :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조속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수호를 위한

시국기도회

일시: 매주 월요일 19:00
(현재 탄핵 인용까지)

장소: 중앙 주교좌성당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 입양 상담**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c.or.kr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ZOOM 만남 후 정함
장소 : 줌 만남 후, 부산 본원
문의 : 010-9353-1773

•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안내**

일시 : 언제나라도 문의 받습니다.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382-2214/010-7159-9674

•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 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 숙소 이용 가능
요나성당 인근 성지-서짓골 성지
갈매못순교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 041-934-7758

<https://yonaresort.modoo.at/>

문실버요양병원(구, 문병원)

가톨릭 신자 내원 시 우대 혜택
원장 : 문지식 레나도, 기순중 안젤라
위치 : 경원동 KT 사옥 옆
- 063)282-8833~6/284-2918 -



금상동성당 하늘자리(천주교 전주교구 봉안 시설)

하늘자리 봉안당 관리비 납부 안내 / 문의 : 063)245-0091, 6446 / E-mail : haneuljari@daum.net

▶ 대상 : 2007~2010년도에 봉안되신 분 ▶ 관리비 : 75만원(1기, 15년분)

▶ 납부 방법 : ① 방문 :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② 입금 : 전북은행, 519-13-0315500, (재)천주교유지재단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입금 후 전화통화, 고인확인 필수

▶ 계약자(관리자)변경 : 최초계약자의 인감날인된 위임장, 최초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고인의 제적등본 1통, 신규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무연고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또는 연고자의 변동사항 사무실 연락요망

제1회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모범상 공모

가정성화 / 생명봉사 / 복음선교

교구설정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가정 복음화의 실천 사업인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생명에 봉사하는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정’의 복음적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평신도 모범상”을 공모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추천 부문

- 가정성화 : 사랑과 순명으로 성가정의 모범을 보여준 개인
- 생명봉사 : 생명의 존엄성을 드높이고 봉사로 애덕을 실천한 개인
- 복음선교 : 선교를 통해 복음화에 기여한 개인

추천 대상

전주교구 본당 신자 및 제단체 회원

접수 기간

2025년 3월 1일 ~ 11월 15일 17시까지

접수 서류

수상 후보자 추천서, 공적서 각 1부 (전주교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접수처

평단협 이메일 eun-1202@hanmail.net - 우편 접수 (마감 당일 소인까지)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천주교 전주교구청 평단협

시상 내역

- 대상 1명 : 200만원
- 본상 3명 : 각 50만원
- 특별상 1명 : 30만원

수상자 발표

2025년 12월 20일

시상식

2026년 1월 교구 신년하례식

문의

010-2689-4406(평단협)

주최



천주교 전주교구

주관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